

인터넷게임산업

애플發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.

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긍정적 효과 기대

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변화로, 장기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한 Subscription(구독^주) 형태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될 것

애플,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및 검수기간 단축, 광고 도입 발표

애플은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개발자 컨퍼런스 WWDC를 앞두고 앱스토어 개편과 관련된 전략을 발표하였음

- 1) Subscription 방식의 유료앱에 대해 판매 1년 이상 지났을 경우, 현재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30%의 수수료를 15%로 하향하며, 현재 스트리밍,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만 적용하였던 Subscription 방식을 게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
- 2) 앱스토어 내 검수기간을 단축하여 24시간 내 50%, 48시간 내 90% 승인을 완료할 것
- 3) 앱스토어 내 검색광고 서비스를 가을부터 도입할 것

수수료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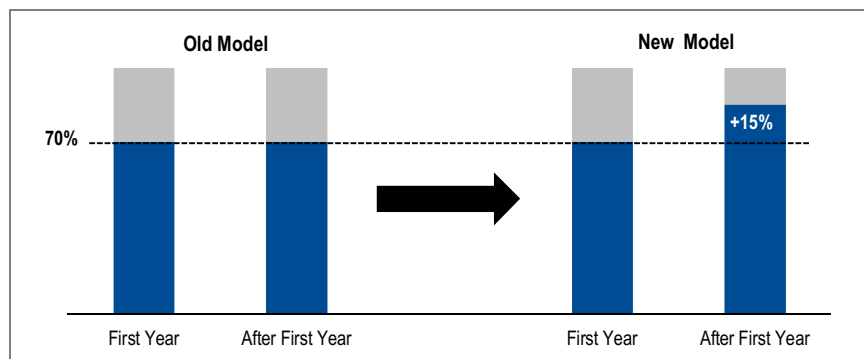
이번 앱스토어의 수수료 체계변화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Subscription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,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기대

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매월/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아이템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, 모바일 메신저의 주요 매출원 중 하나인 스티커 판매를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
다만, 모든 수수료가 30%에서 15%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든 게임/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한번에 영업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

주) subscription(구독)방식: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

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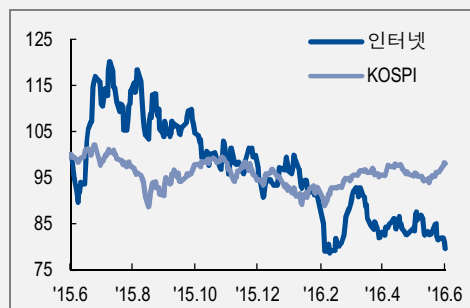
자료: The Verge, 애플,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Industry Comment | 2016. 6. 10

Positive (유지)

	PER(배)	PBR(배)
KOSPI	11.0	1.0
Sector	37.6	3.0

Sector Inde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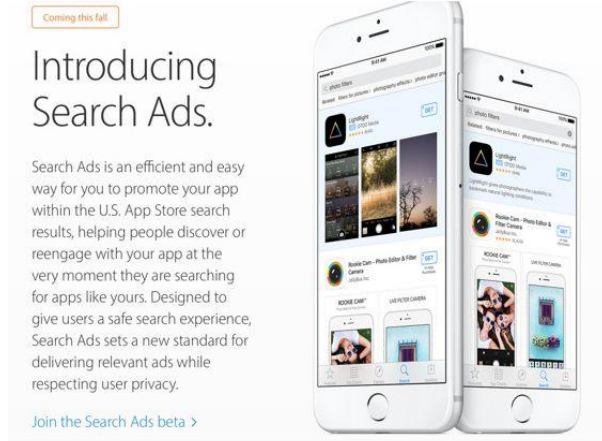
업종 시가총액 33,285십억원 (Market 비중 2.60%)
주: KRX업종 분류 기준



Analyst 안재민

02)768-7647, jaemin.ahn@nhqv.com

애플이 가을부터 도입할 앱스토어 검색광고 모델



자료: 애플

종목 투자등급(Stock Ratings)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

1. 투자등급(Ratings):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

- Buy : 15% 초과
- Hold : -15% ~ 15%
- Sell : -15% 미만

2.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. (2016년 6월 3일 기준)

- 투자 의견 분포

Buy	Hold	Sell
77.6%	22.4%	0.0%

-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투자 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'동 자료상'에 언급된 기업들의 발행주식 등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'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 사항

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동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중단되는 경우, 당사 홈페이지(www.nhqv.com)에서 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